

## 출판의 주제로서의 중국, 가능성과 잠재력의 영역

표정훈\_출판평론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루어진 양국간 교류 확대는 괄목할 만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한·중은 상호 3대 교역국이 됐고(2002년 말 수출 237.5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 투자 대상국이 됐으며(2002년 말 실제투자액 65.35억 달러), 인적 교류도 2002년에 266만 명(한국인 방중 212만, 중국인 방한 54만)을 기록했다. 더구나 이 기간 중국은 잠재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 경제무대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중국과 관계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됐던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 일반의 관심으로 확산, 보편화되는 시기가 지난 10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출판계 및 독자들의 중국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 증대는 당연지사에 해당한다. 9·11 테러 사건과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 관련 도서가 일종의 테마 종목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특정 국가 관련 도서 가운데 출간 종수나 다양성에서 중국 관련 도서에 견줄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우선 앞서 언급한 중국의 현실적인 부상에 발맞추어 경제경영서 분야의 중국 관련 도서가 주도주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시장 질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국경제 및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예컨대 《중국과 WTO》(에코리브르), 《WTO로 가는 중국》(박영률출판사), 《차이나 임팩트》(청림출판), 《중국과 세계경제》(함께읽는책), 《중국의 시대》(민음사), 《차이나 프로젝트》(휴머니스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뒤의 두 책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치·사회 등 중국의 전반적인 현실을 큰 스케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시분석 및 전망서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 관련 경제경영서는 특히 한·중 수교 10주년이었던 2002년을 즈음하여 집중적으로 출간됐다. 또한 화려하게 부상하는 중국의 뒀안길을 해부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다분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중국은 가짜다》(홍익출판사), 《중국의 몰락》(뜨인돌) 등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중국이라는 일종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독자층으로 하는, 비즈니스 실용서에 가까운 책들도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김영사), 《뉴 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한국경제신문사), 《13억 중국시장의 이해》(진리탐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밖에 《반경》(동아일보사), 《상경》(더난출판사),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책을 읽거나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궁리닷컴(www.kungree.com) 운영기획자, KBS TV <TV, 책을 말한다> 자문위원으로 있으며 그간 옮긴 책으로는 <고대문명의 환경사> <중국의 자유전통> <나방은 왜 에디슨을 미워할까> <도교의 양성술> <주자강의> <맞춤인간이오고 있다> (공역)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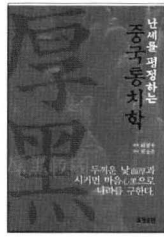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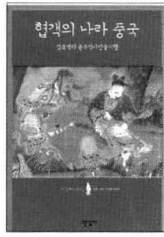
《난세를 평정하는 중국통치학》(효형출판) 등과 같이, 중국의 전통·역사·고전에 바탕을 둔 처세 실용서도 꾸준히 출간됐다. 특히 이러한 책들은 인문 교양에 바탕을 둔 처세 실용서, 즉 일종의 퓨전 도서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관련 인문 교양서를 보면,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로 다작의 저술가이기도 한 이나미 리츠코의 다음과 같은 중국 관련 저작 세 권이 2002년에 출간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배신자의 중국사》(작가정신), 《중국의 은자들》(한길사), 《4천년 중국사를 만든 중국인 이야기》(이손). 이나미 리츠코는 중국의 역사·사상·인물을 다룬 대중성을 갖춘 교양서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저자다. 일빛에서 출간한 웨난의 저서 《구룡배의 전설》, 《부활하는 군단》, 《주구점의 북경인》, 《천년의 학술 현안》 등도 치밀한 취재와 자료 조사에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식 글쓰기로 고정 독자층 형성까지 넘보았다.

국내 저자로는 《중국인의 상술》, 《협객의 나라 중국》(이상 한길사) 등을 내놓은 강효백 씨, '박한제 교수의 중국 역사 기행' (사계절) 시리즈 세 권을 내놓은 박한제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인문·경제·사회·비즈니스·중국어 등을 모두 포괄하면서 중국을 개괄하려는 의욕을 과시한 《중국, 이것이 중국이다》(아이필드)의 이인호 교수(한양대 중어중문학) 등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중국, 이것이 중국이다》는 실용 측면에서 중국 관련 정보를 원하는 독자, 교양 측면에서 중국 읽기의 즐거움을 원하는 독자에게 두루 봉사하는 미덕을 지닌다.

인문 교양서로 분류할 수 있는 책으로 중국의 역사 인물을 다룬 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저자들의 책이 전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이런 책들이 있다. 《역사의 혼 사마천》, 《중체서용의 경세가 중국변》(이상 이끝리오), 《원세계》(지호), 《장자 평전》, 《노자 평전》, 《공자 평전》, 《맹자 평전》, 《진시황 평전》(이상 미다스북스). 물론 아직까지 중국 저자들 가운데 일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서, 시장성을 갖춘 저술을 내놓는 저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의 대외 출판교류가 보다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주마간산격이기는 하지만 경제경영서, 비즈니스 실용서, 인문 교양서 등의 분야에 걸쳐 중국 관련 도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 학술도서의 최근 현황은 어떨까? 아쉽게도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산, 청계, 예문서원, 문학과지성사(서남동양학술총서 가운데 중국학 도서), 사계절 등 몇몇 출판사들이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 리저허우와 류짜이푸의 대답을 통해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  
 쳐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고별혁명》(북로드)이나 19세기 초부터 최근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구조적 관점에서 조망한 《반조류의 중국》(돌베개), 거시적이  
 고 비교론적인 접근을 통해 21세기에 중국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산실로 거듭나리라는 전  
 망을 담은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이산). 이런 책들이 중국 관련 고급 교양 내  
 지는 학술서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에 관한 고급 담론과 만날 기회가  
 드물었고, 그나마 드문 기회의 대부분은 외국 중국 전문가의 책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장으로서의 중국, 기회로서의 중국, 현실적인 힘과  
 영향력을 지닌 중국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그런 중국의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에  
 대한 요구는 답보 상태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중국여행 한 번 다녀와서 피상적인 인  
 상기를 펴내고 전문가연하는 경우가 전에 비해 드물어진 건 다행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중국 전문가가 제대로 쓴 책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중국을 말하는 책을 심급(審級: 같은 사건을 반복 심판하는, 각각 급이 다른 법원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그 상하의 관계) 개념을 원용하여 분류해 보면 이렇다. 먼저 학술  
 연구 주제로서의 중국, 학문으로서의 중국을 말하는 책들이 있다. 중국을 말하는 책들의  
 심급에서 최종심급에 해당한다. 시대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책들이  
 기도 하다. 물론 최종심급에 해당하는 책들만 중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간심급은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종심급에 비해 접근하기 쉬운 책들이다. 요컨대 교양으로서의  
 중국이다. 심급과 상관없이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간심급의 경우 글쓰기가 특히  
 중요하다. 요컨대 읽는 재미와 아는 재미를 두루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초심급의 책  
 은 실용으로서의 중국 또는 바로 지금 여기의 중국이다.

이상에서 최초, 중간, 최종이라는 표현은 심급의 본래 뜻과는 달리, 위계를 나타  
 내는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요컨대 최종심급의 책들이 최초심급의 책에 비해서 우월  
 하다거나 하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학술과 교양과 실용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지닌 영역  
 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지 않던가. 오히려 이러한 여러 심급의 책들이 균형과 상호 보  
 완을 이루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여러 각도, 여러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종횡 다양성이 출판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중국 관련 도서에서 새삼 확인  
 하게 된다. 적어도 출판의 주제로서의 중국은 아직까지 가능성과 잠재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